



3면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산업용지 지정을"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음 10월 21일) 제3629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빌 6번지

김 지사 "올림픽 소통 부족 사과"

도의회서 설명회 열고 표명... "간밀하게 소통할 것"

도의회 "국내 도시 선정될 때까지 안전 기해줄 것"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간 소통부재가 지적된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는 20일 전북자치도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설명회를 갖고 "올림픽 유치는 중대한 사안을 두고 의회와의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나서 의원들과 소통하고자 했지만 좀 더 일찍 소통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를 표명했다.

그는 "그간 속사정이 좀 있었다. 지난해부터 올림픽 유치를 준비했고 서울과 공동개최를 추진했지만 최종 결정됐다"며 "전북이 중심돼 충청·전라권과 연계하는 단독개최로 방향을 수정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인비즈니스 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올림픽 유치를 선언하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발표시점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는 올림픽 유치 계획에 대해 밀접하게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가 다른 국가와 서울시에 비해 출발이 다소 늦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유치하지 못했을 때의 좌절감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으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애정어린 비판의 말씀을 해주셨다. 어렵지만 아름다운 도전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부탁했다.

이날 김 지사의 사과에 도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김 지사가 그간 소통 부족에 대한 사과와 함께 설명에 직접 나선 부분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다"며, "다만, 언론 등을 통해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를 바 없는 형식적 설명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도의회는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전북민의 하계 올림픽 유치 전략과 실행 계획 등 명쾌하고 속 시원한 설명을 기대했으나, 의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통 부재에 대해 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동반자이다"며, "이번 하계 올림픽 유치를 둘러싼 소통 부재의 아쉬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기대하며, 국내 도시 선정 시까지 안전을 기해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향후 이번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불거진 소통부재를 극복하고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전북자치도와 도의회가 전북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인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실전과 같이'

2024년 READY Korea 4차 훈련이 열린 20일, 전주시 팔복나하 파트와 더메이호텔에서 소방관들이 실전과 같은 모습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서 이루어진다. 이번 명단공개는 단순히 체납 정보를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외국 수입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의 조치를 관세청과 협력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납징수 효과를 극대화하고 체납 재산의 은닉을 방지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통해 총 15억 5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체납세 징수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차지행정국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보 분석을 통해 배우자의 은닉 금융재산 조사,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해 성실 납세자의 형평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286명 명단 공개

개인 163명·법인 123개... 압류·공매 등 조치 관세청과 협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86명의 명단을 20일 행정안전부, 전북자치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개인 163명과 법인 123개로, 체납액은 개인 60억 3,000만원, 법인 53억 4,000만원 등 총 113억 7,000만원에 달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체납자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공정과 신뢰를 강조하고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고자 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37명의 명단 공개 후보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했

으며, 6개월간 체납액 납부 및 소멸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46명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멸자료를 제출하여 명단공개에서 제외됐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및 세목, 납기,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의 정보까지 함께 공개된다. 공개된 명단은 행정안전부 및 전북자치도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위택스(지방세정보-정보공개-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체납자의 정보공개는 지방세 징수법 제11조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20일 완주산업단지내 소재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건강한 로컬푸드로 만든 '완주산단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 개소식이 열렸다.

완주군, 도내 최초 산단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

'건강한 식사로 힘찬 하루'

평일 오전 6시부터 완주산단 근로자 대상

로컬푸드 김밥·샐러드 등 최대 2000원 판매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 후 내년에 본격 운영

완주군이 전북 최초로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0일 완주군은 완주산업단지내 소재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건강한 로컬푸드로 만든 '완주산단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유익식 완주군의회 의장, 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장, 서남용 완주군의원, 황정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최한식 한국노총완주지역본부장, 차덕현 민주차노동조합 전주공장위원회 의장 등 완주산업단지의 기업 및 근로자들이 참석했다.

내빈들은 직접 아침식사를 판매하며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은 식사를 하지 못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확보와 근로여건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장이 발의한 완주군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완주군의회가 완주산단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나섰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신선한 완주의 로컬푸드로 만든 김밥, 샐러드, 샌드위치를 하루

200명만 판매할 예정이며 구매할 음식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취식 공간도 같이 운영된다. 판매가격은 1,000원에서 2,000원이다. 준비한 재료가 소진되면 당일 영업은 조기 종료된다.

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장은 "이번 아침식사 지원사업은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유익식 완주군의회 의장은 "이번 아침식사 지원사업이 아침 일찍 출근해 식사를 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고금리와 고물가 등 경제 위기 속에서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전북 최초로 시작하는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경제도시 완주군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은 2024년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수요 및 만족도를 조사, 파악 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순창군을 사랑하는 마음

고향사랑기부제로 전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기부한도 : 연간 최대 500만원)

기부방법

- 대면납부 : 농협은행 방문신청(전국 농축협 어디나 가능, 단위농협 포함)

신분증 지참	>	기탁서 작성	>	기부(현금 또는 카드)	>	답례품 선택 및 배송
--------	---	--------	---	--------------	---	-------------
- 인터넷 납부(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기부자 인증 (거주지·한도 확인)	>	기부금 결제 (계좌이체·신용카드 등)	>	답례품 선택 (기부액의 30%)	>	답례품 배송 (배송지 선택 배송내역 조회)
-----------------------	---	-------------------------	---	----------------------	---	----------------------------

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시 16.5% 공제
- 답례품 : 기부금의 30%내 지역특산물 등 제공 *순창고추장, 장내미생물검사키트, 별초대행서비스 이용권 등

기부금 사용처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지사업에 사용

기부문의 | 순창군청 정주정책과 ☎ 063)650-1592